

정시, 등급·백분위·표준점수 '맞춤형' 전략을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능 이후 대입 전략

정시 모집 11만6162명 지난해보다 1만여명 감소

87%는 수능 위주 선발...96개 대학은 100% 반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정시 모집 시기를 고려하면 오히려 본격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한 뒤 정확한 분석을 통해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선 교고 진학 담당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표준점수에 따라 성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한 과목의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낙담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 가채점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과감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서 좀 더 높은 점수대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정시 모집 일정

정시 전형	가군 1월2~11일 나군 1월12~19일 다군 1월20~27일
정시 합격자 발표	1월 28일까지
등록 기간	1월29일~2월2일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월16일 오후 9시까지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월17일까지
추가 모집	2월18~23일
추가 모집합격자 발표	2월24일 오후 9시 이전
추가 모집 등록 마감	2월25일

■ 대학별 정시 모집 인원

서울대	784	전남대	1692
연세대	991(서울) 456(원주)	조선대	1491
고려대	1090(서울) 689(세종)	광주교대	143
서강대	563	목포대	431
성균관대	880	목포해양대	293
한양대	914(서울) 507(춘천)	순천대	567
중앙대	1052(서울) 605(안성)	광주대	429
경희대	2079	광주여대	87
이화여대	1344	동신대	129
한국외대	656(서울) 1084(글로벌)	호남대	62
서울시립대	1084	광신대	42

■ 대입설명회 일정

이투스	11월17일 오후 7시 광주여성발전센터 대강당
광주시교육청	11월18일 오후 3시/12월9일 오후 4시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
전남도교육청	12월14~15일 목포, 순천(점점)

■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11월)

21일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인문), 한국외대(어문계열, 글로벌)
22일	중앙대(자연), 한국외대(상경 등), 이화여대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투스

◇정시, 수능 영향 절대적=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197개 4년제 대학이 정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은 11만6162명. 지난해보다 1만1407명 감소했고 전체 모집 인원(35만7138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34.8%)보다 2.3%포인트 줄었다.

정시모집 인원 감소는 수시 모집 확대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때문으로 대교협은 판단했다. 수치로만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의 경쟁률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정시 모집 인원의 86.7%인 10만762명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인데, 수능시험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96개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능 성적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반면, 70개교가 30% 미만을 반영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은 적다.

원서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12월 24~30일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한다. 전형은 가군이 내년 1월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20일부터 시작한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하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차이=정시 모집의 경우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산출되는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대학마다 다르다. 수험생들이 자신의 점수별 특성에 따라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지원 전략을 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된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은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쉽게 출제된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수능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수험생·학부모들이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수험생들은 자체 분석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 학과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입시설명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서울대의 경우 등급·백분위·표준점수로 산출되는 수능성적을 모두 활용하고 연세·서강·한양·이화여대, 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 등은 표준점수를, 고려·경희·성균관·중앙대 등은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지표로 활용한다.

주요 대학별 모집인원은 ▲서울대 783명 ▲연세대(서울) 1051명 ▲고려대 1027명 ▲성균관대 880명(가군 390명·나군 490명) ▲서강대 563명 등이며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가 1692명(광주 1401명·여수 291명)을 정시모집으로 뽑는다.

또 조선대 1491명, 목포대 431명, 순천대 567명, 광주대 429명, 동신대 129명, 호

남대 62명, 광주여대 87명, 남부대 73명, 목포해양대 292명, 광주교대 143명 등이다.

호남대의 경우 전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학과별 합격자들의 수능 성적 평균 백분위, 예비후보 발표 순위 등 세부적 입시 결과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 눈길을 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12월 3~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시모집 대입정보 박람회를 열고 대학의 교·직원과 현직 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들이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다음달 말부터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권역별 정시모집 설명회도 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역 대학들 '고3 모시기'

'캠퍼스 투어' 앞다퉈 나서...신입생 유치전 시작

광주 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학 이미지 홍보 뿐 아니라 신입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조선대(총장 서재홍)가 가장 적극적이다. 10여일간 진행되는 캠퍼스 투어를 통해 조선대를 찾는 지역 고교생만 33개 교에서 1만명이 넘는다.

수능이 끝난 16일 광주 성덕고 학생 347명과 광주수피아여고 425명, 해남고 255명을 시작으로 ▲17일 970명(문정여고 370명·조대부고 300명·문성고 300명) ▲18일 964명(대동고 335명·설원여고 350명·금호고 279명) ▲19일 1145명 등 27일까지 매일 1000명

이 넘는 학생들이 조선대 곳곳을 둘러본다.

조선대 홍보대사 17명이 치과대학~공과대학~의과대학~장미원~경상대·법대~본관~미술대학~중앙도서관~해오름관까지 1시간 동안 동행하며 안내한다. 캠퍼스투어마다 장학금제도 등을 곁들여 입학 설명회도 진행한다.

전남대도 수능시험이 끝난 뒤인 20일 서서고 3학년생들의 캠퍼스 투어를 비롯, 살레시오여고(23일)·상일여고(26~27일) 학생들이 캠퍼스를 둘러본다. 호남대의 경우 수능 이후 학과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 투어가 예정돼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능 끝났다고 탈선 안돼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광주유체국 앞에서 청소년 단체 등과 공동으로 건전한 문화체험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육청을 비롯, 관련 당국은 이 기간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교육단신

▲백일초교에서 성진초교로=광주시교육청은 15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백일초등학교 교명변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일초교 명칭을 성진초교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새로운 교명은 내년 3월 1일부터 사용된다.

교명 '성진'은 지난 1926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결성한 '성진회'의 정신을 이어받고 올바른 역사관식을 높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여대 학술제 개최=광주여대(총장 이선재)는 지난 13일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다문화 현상-배제를 넘어 참여와 나눔으로'라는 주제의 학술제를 개최했다.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5층, 90평>

→ 5층전용, 90평

즉시입주가 / 시설완비

(주차2대 무료)
(시비 약간 있음)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우리은행 뒷)

→ 보 2천, 월 130만

신축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신축 상가원룸 (4면 대리석시공)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 매가 6억9천

법률경매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룬 60개-8층, 주택겸사무실)
☆ 분할등기가능 (향후 60억가치있음)
☆ 임대수익 (보 3억, 월세 3천만)
(12월 1일) 경매일

감정가 35억4천 → **24억8천**

2.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키지사 부근

5. 광산구 남산동 (토 258평, 건 150평)
감정가 4억8천 → **최저가 2억1천**
→ 1층(제조업,냉동창고) 2층 (사무실)

경매 투자

1. 원금 보장(연수익 20%)
예) 1억투자시 연 이자 2천만원

2. 경매 전문 낙찰부터 개발기회 매매까지 책임중개

3. 단독/공동 투자 가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억) (10억~100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건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

2.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
(토53평,건 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3.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건364평)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8억5천6백**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①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대지 144평,건 260평) → 매가 17억

②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렛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6억) → 매가 20억

③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대지 122평,건2423평) → 매가 28억

④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① 상무지구 정면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4천5백만

⑤ 나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10분,나주시청2분) (보2천,월200만) → 매가 3억

신축원룸 매매 (상가겸용)

①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부,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7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용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룬-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④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8백만

⑤ 서구 쌍촌동 대문파크 2층(11평) 운전역변출구 3분 (용2천)보3백,월32만) → 매가 3천6백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